

국 어

1. 다음 <보기>의 단어 중 합성어는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오술길, 일으키다, 붙잡다, 새해, 꽃사랑, 들국화, 접갈, 먹었다, 참기름, 짓누르다, 날짐승, 남자답다, 반짝이다, 책상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2.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 ① 꼬적거리다, 맨날, 접때, 빠친, 맛쩍은
② 두리몽실하다, 먹거리, 오순도순, 널빤지, 후드득후드득
③ 남사스럽다, 점쟁이, 짜장면, 떠벌이, 헬썩하다
④ 씹싸름하다, 뒷꿈치, 개발새발, 뽀두라지, 셋째
⑤ 새초롬하다, 덩굴, 뜨락, 얼레리꼴레리, 소싯적

3.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고유어인 것은?

- ① 그녀는 운전면허 시험에 또 떨어져서 창피했다.
②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③ 나는 바지 기장을 줄여서 입었다.
④ 냄비에서 물이 끓고 있다.
⑤ 그는 모자를 벗어 가방 속에 넣었다.

4. 다음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깐깐오월이라, 음력 5월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지.
② 그 교수의 이론은 사개가 맞아 모두가 동의하였다.
③ 그는 오랫동안 만나 온 사람이지만 좀처럼 겉을 주지 않았다.
④ 우리 어머니는 손이 겉어서 음식을 항상 많이 하셨다.
⑤ 그는 엉너리를 치며 슬그머니 다가와 앉았다.

5. 다음 중 ㉠~㉣의 독음이 옳지 않은 것은?

元來 文學은 다못 情的 滿足 卽 ㉠遊戯로 생겨나실디며 또 多年間 如此히 알아와시나 漸漸 此가 進步 發展함에 及호야는 理性이 添加호야 吾人의 思想과 理想을 支配호는 主權者가 되며 人生 問題 解決의 擔任者가 된지라. (중략) 故로 所謂 文學은 昔日 遊戯의 文學과는 全히 異호느니 昔日 詩歌 小說은 다못 ㉡鎖閑遣悶의 娛樂의 文字에 不過호며 또 其作者도 如等호 目的에 不外호여시나 今日의 詩歌 小說은 決코 不然호야 人生과 宇宙의 眞理를 ㉢闡發호며 人生의 行路를 研究호며 人生의 情的 狀態 及 變遷을 ㉣攷究호며 또 其作者도 가장 沈重호 態도와 精密호 觀察과 深遠호 想像으로 心血을 ㉤灌注호느니 昔日의 文學과 今日의 文學을 混同티 못홀디로다.

- ① ㉠: 유희 ② ㉡: 왜한유민
③ ㉢: 천발 ④ ㉣: 고구
⑤ ㉤: 관주

6. 다음 중 화자가 복수로 설정된 것은?

- ① 頭流山 兩端水を 네 듯고 이제 보니,
桃花 쓴 몫은 물에 山影조차 잠겨세라.
아희야, 武陵이 어더미오, 나는 엔가 호노라.
② 호미도 놀히언마르논 날ᄭᆞ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아바님도 어이어신마르논
위 덩터등성 어마님ᄭᆞ티 괴시리 업세라.
아소 님하, 어마님ᄭᆞ티 괴시리 업세라.
③ 식어마님 머느라기 닛바 벽 바흘 구루지 마오
빛에 바든 머느린가 감세 쳐 온 머느린가 밤나모 서근 등걸에
휘초리 나니ᄭᆞ치 알살피션 식어버님, 벗 뵈 싯쫓ᄭᆞ치 되종고신
식어마님 三年 겨론 망태에 새 송곳 부리ᄭᆞ치 썩족호신 식누이님
唐피 가론 밧티 돌피 나니ᄭᆞ치 시노란 윗곳 ᄭᆞ튼 피쫓 누논 아돌
호나 두고,
건 밧티 메곳 ᄭᆞ튼 머느리를 어되를 닛바 호시논고.
④ 흐르밤 서리감의 기러기 우리 널 제
危樓에 혼자 올라 水晶簾을 거든마리
東山의 돌이 나고 北極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淸光을 취여 내어 鳳凰樓의 붓티고저.
樓 우회 거러 두고 八荒의 다 비취여
深山窮谷을 점나ᄭᆞ티 밍그소서.
⑤ 두터비 프리를 물고 두힘 우회 치드라 안자
것넌산 브라보니 白松骨이 썩 잇거늘, 가슴이 금즉호여 풀덕 뛰
여 내뎡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놀넌 뉘식망정 에헐질 번헐페라.

7. 다음 중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쓴 것은?

- ① 나사가 너무 세게 췌 있어서 풀기 어렵다.
②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아라.
③ 영화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잤다.
④ 네 기분은 어떻냐?
⑤ 철수는 지난 시험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

8. 다음 중 문맥상 ㉠~㉤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무거운 기분의 침체와 한없이 늘어진 생의 권태는 나가지 않는 나의 발길을 남포(南浦)까지 끌어왔다.

귀성한 후, 칠팔 개삭간의 불규칙한 생활은 나의 전신을 ㉠해면같이 짓두들겨 놓았을 뿐 아니라 나의 혼백까지 ㉡두식하였다. 나의 몸을 어디를 두드리든지 알코올과 니코틴의 독취를 내뿜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피로하였었다. 더구나 육칠월 ㉢성하를 지내고 겹옷 입을 때가 되어서는 절기가 급변하여 갈수록 몸을 추스리기가 겨워서 동네 산보에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친구와 이야기하려면 두세 마디째부터는 목침을 찾았다.

그러면서도 무섭게 양분(昂奮)한 신경만은 잠자리에서도 눈을 뜨고 있었다. 두해 세해 올 때까지 엮치락뒤치락거리다가 동이 번치 트는 것을 보고 겨우 눈을 붙이는 것이 일주일 간이나 넘은 뒤에는 불을 끄고 드러눕지를 못하였다.

그 중에도 나의 머리에 ㉣교착하여 불을 끄고 누웠을 때나 조용히 앉았을 때마다 가혹히 나의 신경을 엄습하여 오는 것은 해부된 개구리가 사지에 핀을 박고 칠성판 위에 자빠진 형상이다.

내가 중학교 이년 시대에 박물관실실에서 수업 텃석부리 선생이 청개구리를 해부하여 가지고 더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장을 차례차례로 끌어내서 자는 아기 누이들이 ㉤주정병에 채운 후에 웅위하고 서서 있는 생도들을 돌아다보며 대 발견이나 한 듯이,

“자 여러분, 이래도 아직 살아 있는 것을 보시오.”

하고 뽕죽한 바늘 끝으로 여기저기를 콕콕 찌르는 대로 오장을 빼앗긴 개구리는 진저리를 치며 사지에 못 박힌 채 발딱 발딱 고민하는 모양이었다.

팔 년이나 된 그 인상이 묘사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서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아니 되었다. 새파란 메스, 닭의 똥만한 오물오물하는 심장과 폐, 바늘 끝, 조그만 전율…… 차례차례로 생각날 때마다 머리끝이 쭈뼛쭈뼛하고 전신에 냉수를 끼얹는 것 같았다.

- ① 해면: 해면동물(海綿動物)
- ② 두식: 혼란스럽게 함
- ③ 성하: 한여름
- ④ 교착: 아주 단단히 달라붙음
- ⑤ 주정병: 알코올이 담긴 병

9. 다음 중 한자의 표기와 뜻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氣像: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
- ② 司正: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음
- ③ 改正: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서 다시 정함
- ④ 收容: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
- ⑤ 現象: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

10. 다음 <보기>의 글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아주 극단의 예로, 왕조말의 시인 황매천(黃梅泉)은 합방의 소식을 듣고 ‘難作人間識字人’—사람 가운데도 식자나 한다는 사람 되기가 이렇게도 어렵구나 하는 시를 남기고 자결을 했다. 하물며 하루 세 끼 밥 먹기 위해, 혹은 단지 호강하고 편히 살기 위해 직업을 택한다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차마 취하지 못할 일인 것은 더 말할 것 없다.

(가) 직업이 그저 일신의 고식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하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직업을 논하는 경우의 정석처럼 되어 있는 대목이다. 지계를 지건 구두담이를 하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훌륭히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식을 마땅히 가짐직한 사람들이 그것을 갖지 못하거나, 아예 그것을 귀찮다고 외면하는 수도 있다. 직업을 한낱 고식지계로 타락시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수가 있다.

(다) 세상이 하고많은 부정부패가 있다고들 하고, 그 부정부패가 불학무식(不學無識)한 사람들에서보다 식자(識字)나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심각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직업을 통한 사회적 분담이라는 의식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라) 우수한 대학을 나오는 젊은이들 가운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직업을 얻는 데조차 힘이 드는 수도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런 정도로 오늘 현재의 우리 사회는 몹시 병든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록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지식인의 직업은 역시 고식지계일 수는 없다.

(마) 자기의 개성에 따라, 이것이 나의 생계를 위한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나의 참여, 분담, 공헌, 기여의 길이라고 확신하여 얻은 직업에는 자기의 전 생명을 기울여 마땅하다. 내 직업에 전 생명을 기울이는 가운데서, 비로소, 이 세상에 태어나 남들이라고 다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발전에 다소의 값음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믿는다.

(바) 명예다, 부다, 그 밖에 세상에서 흔히 즐기는 가치들은 내 직업에 전 생명을 기울이는 부산물로서 와주면 더욱 좋고, 아니 와준다 해서 탓할 것 없는 것이 될 것으로 믿는다.

- ① (가)와 (나) 사이 ② (나)와 (다) 사이
- ③ (다)와 (라) 사이 ④ (라)와 (마) 사이
- ⑤ (마)와 (바) 사이

11. 다음 중 시적 화자의 정서가 <보기>의 시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막음이 어린 後 | 니 흥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에 어니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幸히 권가 흥노라.

- ① 風霜이 섰거 친 날에 又 피은 黃菊花를
金盆에 又 님 다마 玉堂에 보니오니,
桃李야, 꽃이오냐 마라, 님의 뜻을 알패라.
- ② 말업슨 靑山이오 態업슨 流水 | 로다
감업슨 淸風과 임즈업슨 明月이로다
이등에 일업슨 니몸이 分別업시 늙그리라.
- ③ 靑草 우거진 골에 즈논다 누엇는다
紅顏을 어디 두고 白骨만 못쳤는다
蠶 잡아 勸히리 업스니 글을 슬허 흥노라.
- ④ 뿔버들 같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터
자시는 窓 밧기 심거 두고 보쇼셔
맘비에 새넌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⑤ 늙고 病든 情은 菊花에 붙쳐두고
실갓치 헛튼 愁心 黑葡萄에 붙쳐노라
귀밧티 훑나는 白髮은 一長歌에 붙쳐노라.

12. 다음 글의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어느 날 건축가 김진에 선배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툭, 한마디 던졌다. “제주올레, 어때?”
- (나)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왜 길을 만들려고 하는지, 내가 만들 제주 길에 어떤 풍경들이 펼쳐지는지를 입술이 부르르 설명했다. 제주 걷는 길, 섬길, 제주 소로길…… 술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지만, 맘에 쏙 드는 건 없었다.
- (다) 길을 만들기에 앞서서 길 이름부터 짓기로 했다. 이름은 곧 깃발이요 철학이기에, 제주가 지닌 독특한 매력을 반영하면서도 길에 대한 나의 지향점이 오롯이 담긴 이름이라야만 했다.
- (라) 내가 구상하는 길은 실용적 목적을 지닌 길이 아니다. 그저 그곳에서 놀멍, 쉬멍, 걸으멍 가는 길이다. 지친 영혼에게 세상의 짐을 잠시 부려놓도록 위안과 안식을 주는 길이다. 푸른 하늘과 바다, 싱그러운 바람이 함께 하는.
- (마) 귀가 번쩍 뜨였다. 대부분이 육지 출신이라서 그게 뭘 소리여, 의아한 눈치였지만 ‘올레’는 제주 출신인 내게는 참으로 친근하고 정겨운 단어였다. 자기 집 마당에서 마을의 거리길로 들고나는 진입로가 올레다.

- ① (가)-(마)-(나)-(다)-(라) ② (나)-(다)-(라)-(가)-(마)
③ (다)-(나)-(가)-(마)-(라) ④ (다)-(나)-(라)-(가)-(마)
⑤ (다)-(라)-(나)-(가)-(마)

13. 다음 글의 서사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앉았을 때에 승의 곁에는 서술이 푸른 경관 세 명이 달려왔다. 승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셋 중에서 가장 똑똑해 보이는 순사가 바짝 승의 가슴 앞에 와 서며, “당신 무엇이오?” 하고 무뚝뚝하게 물었다. ‘무엇이오?’ 하는 말에 승은 좀 불쾌했다. “나 사람이오.” 하고 승도 불쾌하게 대답하였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 하고 곁에 섰던 순사가 승에게 대들었다. “사람더러 무엇이냐고 묻는 법은 어디 있어?” 하고 승도 반말로 대답했다. “이놈아, 그런 말버릇 어디서 배워먹었어?” 하고 곁에 섰던 또 다른 순사가 승의 따귀를 갈겼다. 연거푸 두 번을 갈기는 판에 승의 모자가 땅에 떨어졌다. 처음에 승에게 ‘당신 무엇이오?’ 하던 순사가 수첩을 꺼내어 들고, “성명이 무어?” 하고 신문하는 구조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거든, 왜 까닭 없는 사람더러 불공하게 말을 하오?” 하고 승은 뻔대었다. “아마 이놈이 동네 농민들을 선동을 하여서 농업 기수에게 폭행을 시켰나 보오. 이놈부터 묶으시다.” 하고 한 순사가 일본말로 하였다.

승은 어떤 영문을 몰라서 어안이 병병하였다. 그러나 이 순사들은 자기를 따라온 것이 아니요, 이 동네 농민과 기수 세에 무슨 갈등이 생겨서 농민들을 잡으러 오는 것임을 짐작하였다. 그리고는 일변은 변호사인 직업의식으로, 또 일변은 자기가 일생을 위해서 바치려니 살여울 동네 농민에게 무슨 중대 사건이 생겼다 하는 의식으로 이 자리에서 쓸데없는 말쟁을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아니한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오늘 아침차로 서울서 내려온 사람이오. 지금 내 고향인 살여울로 가는 길이오.” 하고 역시 일본말로 냉정하게 대답하였다. 승의 유창하고 점잖은 일본말과 또 냉정한 어조에 수첩을 내어든 순사는 좀 태도를 고쳤다.

“오늘 차에서 내렸소?” 하고 일본말로 좀 순하게 물었다. “그렇소.”

“그랬으면 자네네들 이 사람 보았겠지?” 하고 두 조선 순사를 돌아보았다. 두 순사는 물끄러미 승을 바라보았다. 그중에 한 사람이,

“응, 본 것 같소.” 하고 싱겁게 대답하였다.

이리해서 급하던 풍운은 지나갔다. 더구나 변호사라는 명함을 보고는 경관들은 좀더 태도를 고쳤다. 승의 따귀를 때린 순사는 약간 머쓱하기까지 하였다. 승은 불쾌한 생각이 용이히 가라앉지 않지만, 이것은 시골에 으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꿀꿀 참았다-아니 참기로 별수가 있으라마는.

- ① 전지적 위치에 있는 서술자가 사건의 진행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② 갈등을 유발한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서술자는 부분적으로 사건의 진행과정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④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사건의 진행과정이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⑤ 인물의 심리적인 갈등은 외적인 갈등에 비해 부차적인 대상으로 서술되고 있다.

14.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이처럼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라, 남북이라,
내 몸은 떠가나니, 불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함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여.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일!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저 혼자…… 산경을 김매이는.

- ① 1연에서는 평화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삶을 터전을 잃고 해매는 삶의 고통을 그리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유랑하면서도 희망을 확신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⑤ 유사어구의 반복과 영탄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15. 다음 중 <보기>의 (가)와 (나)의 연결 관계가 옳은 것은?

— <보 기> —

(가) 공문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정확한 단어 선택

- ㉠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 함
- ㉡ 공문에서 표현의 경제성을 얻기 위해 단어를 배열하는 경우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이 나타남
- ㉢ 단어가 사전적 의미 이외에 담고 있는 사회적 가치 및 인식까지 고려하여 써야 함

(나) 공문서에서 발견되는 오류 또는 개정 사례

- ㉠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사회 각계각층 및 지역사회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명예환경감사원으로 위촉하고 운영함으로써
- ㉡ 행정 활동에 임할 때, 국제 공무원은 견제와 균형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 ㉢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의 내용 중, ‘부녀청소년 아동복지 분야’를 ‘여성청소년 아동복지 분야’로, ‘부녀 상담 처리’를 ‘여성 상담 처리’로 바꿈
- ㉣ 장애인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인’이나 ‘정상인’과 같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함

- ① (나)의 ㉠에는 (가)의 ㉠과 관련된 오류가 나타난다.
- ② (나)의 ㉡에는 (가)의 ㉡ 및 ㉢과 관련된 오류가 나타난다.
- ③ (나)의 ㉢는 (가)의 ㉠을 고려한 사례이다.
- ④ (나)의 ㉣는 본질적으로 (가)의 ㉠과 관련된 사례이다.
- ⑤ (나)의 ㉠과 ㉡는 (가)의 ㉡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16.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 가수의 노래는 들을만하다.
- ②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지난봄이었다.
- ③ 그녀가 나타나자 그들은 안절부절못했다.
- ④ 제아무리 빨라도 그를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
- ⑤ 그는 조만간 알프스산을 오를 예정이다.

17. 다음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융합’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1980년 이후에 등장한 과학기술 분야의 가장 강력한 트렌드는 컨버전스, 융합, 잡종의 트렌드이다. 기존의 분야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몇 가지 새로운 분야가 또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러한 트렌드를 볼 때 미래에는 과학과 기술,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경계가 섞이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분야들이 연구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나노과학기술, 생명공학, 물질공학, 뇌과학, 인지과학 등이 이러한 융합의 예이다. 연구대학과 국립연구소의 융합성숙도는 이러한 융합의 경향에 기존의 학문 분과 체계를 어떻게 잘 접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융합은 과학기술 분야 사이에서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다른 문화적 영역에서도 일어난다. 과학기술과 예술, 과학기술과 철학, 과학기술과 법 등 20세기에는 서로 별개의 영역 사이의 혼성이 강조될 것이다. 이는 급격히 바뀌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도덕, 법률의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동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의 장기가 인간의 몸에 이식도 되고 있다. 생각만으로 기계를 작동시키는 인간-기계의 인터페이스도 실험의 수준을 지나 곧 현실화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인간-동물-기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철학, 법, 과학 기술의 경계도 무너지는 것이다.

20년 후 과학기술의 세부 내용을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융합 학문과 학제 간 연구의 지배적 패러다임화, 과학과 타 문화의 혼성화, 사회를 위한 과학 기술의 역할 증대, 국제화와 합동 연구의 증가라는 트렌드는 미래 과학 기술을 특징짓는 뚜렷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 ① 유전공학, 화학 독성물, 태아 권리 등의 법적 논쟁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담은 책
- ② 과학자들이 이론 연구 성과들이 어떻게 재판의 사실 인정 기준에 영향을 주는가를 탐색하고 있는 책
- ③ 과학기술과 법이 만나고 충돌하는 지점들을 탐구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한 책
- ④ 과학은 신이 부여한 자연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며, 사법 체계도 보편적인 자연법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책
- ⑤ 과학자는 과학의 발전 외에 인류의 행복이나 복지 등에는 그리 관심이 많지 않다는 전제 하에 과학 기술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법조인에게 과학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한 책

※ [18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휴리스틱(heuristic)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만 명확한 실마리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편의적·발견적인 방법이다. 우리말로로는 쉬운 방법, 간편법, 발견법, 어림셈 또는 지름길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 논문에서 휴리스틱을 ‘불완전하지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수학자인 폴리아는 휴리스틱을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사용했고, 수학적인 문제 해결에도 휴리스틱 방법이 매우 유효하다고 했다.

휴리스틱에 반대되는 것이 알고리즘(algorithm)이다. 알고리즘은 일정한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알고리즘의 좋은 예이다.

휴리스틱을 이용하는 방법은 거의 모든 경우에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한 답을 재빨리, 그것도 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먼의 ‘만족화’원리와 일치하는 사고방식인데, 가장 전형적인 양상이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이다. 이용 가능성이란 어떤 사상(事象)이 출현할 빈도나 확률을 판단할 때, 그 사상과 관련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해 내고 그것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휴리스틱은 완전한 답이 아니므로 때로는 터무니없는 실수를 자아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확실한 의사결정을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확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률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 확률은,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선거에 당선될지, 경기가 좋아질지, 시험에서 어느 편이 우승할지 따위를 ‘전망’할 때 이용된다. 대개 그러한 확률은 어떤 근거를 기초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직감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직감적인 판단에서 오는 주관적인 확률은 과연 정확한 것일까?

카니먼과 트버스키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인간이 확률이나 빈도를 판단할 때 몇 가지 휴리스틱을 이용하지만, 그에 따라 얻어지는 판단은 객관적이며 올바른 평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종종 ‘바이어스’가 동반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이 일으키는 바이어스 가운데 하나가 ‘사후 판단 바이어스’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 뒤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될 거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와 같은 말을 자주 한다. 이렇게 결과를 알고 나서 마치 사전에 그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바이어스를 ‘사후 판단 바이어스’라고 한다.

18. 밑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석 대상과 관련되는 개념들을 연쇄적으로 제시하며 정보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 ②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 대상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 ③ 핵심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와 유사한 개념들과 비교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다양한 맥락에서 재구성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핵심 개념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19. 밑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휴리스틱’과 ‘바이어스’의 관계를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평소에 30분 정도 걸리기에 느긋하게 출발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늦어졌다.
- ② 그녀는 살을 빼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밥맛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몸무게가 늘었다.
- ③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한 선수를 4번 타자에 기용했는데 4타수 무(無)안타를 기록하였다.
- ④ 동네 마트에서 추첨 세일을 한다기에 식구들이 다 나섰는데 한 집에 한 명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 ⑤ 작년에 텃밭에서 제일 재미를 본 채소를 집중적으로 심었는데 유례없이 병충해가 돌아 몽땅 망치고 말았다.

20. 아래 틀린 문장들을 고쳐 써야 할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출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어색한 문장임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특정 성분이 중복되어 바른 문장이 아님
- ③ 사업목적: 본 사적지 내의 고분은 고고학적으로는 이 지역의 중요한 6세기의 황혈식 고분임 → 수식어들의 순서가 바르지 않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음
- ④ 택지 개발을 하면서 주위의 역사적 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그 상태로 보존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쟁점이 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문장 성분이 중복되어 뜻이 분명하지 않음
- ⑤ 멕시코에서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과음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주보다는 데킬라를 마시는 게 좋다. →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잘못되어 어색한 문장임

21. 다음 중 두 사람의 대화가 표현상 어색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인: 김 서방, 이리 와서 이 책들을 옮겨 주게.
사위: 네, 아버님.
- ② 손님: 이 휴대전화를 사고 싶습니다. 한 달 요금이 얼마인가요?
점원: 네, 고객님의 매월 45,000원 되세요.
- ③ 간호사: 홍길동 님, 어느 분이세요?
환자: 접니다.
간호사: 이쪽에 잠깐 앉아 계실게요.
- ④ 부장: 자네, 이것 할 수 있겠나?
대리: 네, 하시라면 해야죠.
- ⑤ 선생님: 철수야,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지?
학생: 네, 저의 아버지 함자는 홍자 길자 동자이십니다.

※ [22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라가 독립(獨立)이 되려면 남과 달라 독립이 아니라 남과 같아야 독립이 되는 것인데, 내 나라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아무쪼록 내버리지 말고 특별히 배양하여 세상에 행세할 만큼 만들어 놓고 남을 대하여 말하되, 우리나라에도 이러 저러한 좋은 것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독립하는 사람의 승벽()이거늘, 조선은 남을 대하여 자랑할 것이 별양(別樣) 없으니까, 아무쪼록 남의 좋은 것을 본받아 내 것을 만들고 몇 해 후에나 남을 대하여 우리나라에도 그만큼 좋은 것이 있다고 할 날이 있을 터이요, 본래는 어느 나라에서 본받아 왔든지 지금은 우리나라 것이 되었다고 할 터인데, 조선에 그 중 생각 있고 학문 있게 만든 것은 조선 국문이라.

조선 사람들이 대개 완고하여 좋은 것이라도 남의 것은 본받기를 좋아 아니하고 조선 것은 지키기를 즐겨워하나, 글에 당하여서는 좋은 조선 글은 내버리고 청국 글을 기어이 배워 그 글을 쓰기를 숭상하니, 매우 이상한 것이 조선 글이 청국 글만 못 할 것 같으면 암만 내 것이라도 내버리고 남의 나라 글을 숭상하는 것이 진보하는 사람의 일이지니와, 백배나 나은 국문을 내버리고 어렵고 세상에 경계() 없이 만든 청국 글을 배워 그걸 숭상하기를 좋아하니, 대단히 우습고 개탄할 일이다. 지금 조선에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한문을 공부하였고 국문으로는 공부한 사람이 적은 고로 국문이 실상 어떻게 학문 있게 만든 글인 줄을 조선 사람들이 모르는지라. 나라마다 쓰는 글이라 하는 것은 하는 말과 같아 책을 읽어 들려주면 말하는 것과 일반이거늘, 조선은 한문으로 책을 만들고 문적()을 만들어 읽으니 글과 말이 다르지라. 그리한즉 말공부 따로 하고 글공부 따로 하여야 할 터이요, 설령 글공부한 사람이라도 남이 책 읽는 것을 듣고는 무슨 말인지를 모를지라.

지금 소위 공부하였다는 사람은 국문을 숭상하기를 좋아 아니할 것이 한문을 하였은즉,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남보다 유식한 체 하려니까 만일 국문으로 책과 문적을 만들어 전국 인민이 다 학문 있게 되면 자기의 유식한 표가 드러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고, 또 한문을 공부하였고 국문은 공부를 아니 한 고로 한문을 자기의 국문보다 더 아는지라. 그러하나 그런 사람이 국중(國中)에 몇이 있으리오. 수효는 적으나 한문 하는 사람들이 한문 아는 자세()하고 권리를 모두 차지하여 그 나머지 전국 인민을 압제하라는 풍속이니, 국문 숭상하기를 어찌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리오. 그러하나 나라란 것은 몇 사람만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국 인민을 모두 위하여 만든 것이요, 전국 인민이 모두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게 되어야 그 나라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주 독립을 보호하며 사농공상이 늘어가는 법이라.

22. 괄호 속에 들어갈 한자어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① 勝癖 - 境界 - 門籍 - 姿勢
- ② 勝癖 - 經界 - 文籍 - 姿勢
- ③ 承癖 - 境界 - 門籍 - 藉勢
- ④ 勝癖 - 經界 - 文籍 - 藉勢
- ⑤ 承癖 - 境界 - 文籍 - 姿勢

23.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문은 한문보다 뛰어나다.
- ②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 ③ 조선 사람들은 문명국을 본받으려 노력하고 있다.
- ④ 조선이 독립을 이루려면 다른 나라와 동등해져야 한다.
- ⑤ 지식인이 국문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군림하기 위해서이다.

24. 다음 중 문맥상 ㉠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가 아가, 우지 마라. 아무리 젖을 달란들 무엇 먹고 젖이 나며 밥을 아무리 달란들 어대서 쌀이 나랴.”

이처럼 달랠 제 흥부 마음 인후(仁厚)하여 청산유수요 곤륜백옥(崑崙白玉)이라. 성덕을 본을 삼고 악한 일 멀리하며 물욕에 탐이 없고 주색(酒色)에 무심한지라. 마음이 이러하니 부귀를 바랄소나. 흥부 아내 이른 말이,

“여보 아이 아버지, 내 말씀 들어 보시오. 부질없이 청렴한 체 마오. 안자(顔子)의 누항단瓢(陋巷簞瓢) 주린 염치 삼십에 조사(早死)하고 백이숙제 주린 염치 수양산에 아사(餓死)하니 청루 소부 울었으매 부질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살려 보사이다. 저 건너 아주버님 댁에 가서 쌀이 되나 돈이 되나 양단간에 얻어 읊소.”

흥부 하는 말

“형님 댁에 갔다가 보리나 타고 오게?”

흥부 아내 착한 마음에 보리라 하니가 먹는 보리로만 알고 하는 말이,

“여보, 배부른 소리 작작하오. 보리는 흉년 곡식이라 느루 먹기는 정말 쌀보다 낫습네다.”

흥부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보리라니까 갈보리, 봄보리, 늦보리로 아나 보오그려. 우리 형님이 음식 끝을 볼 양이면 사촌을 몰라보고 가사목이나 무 푸레 몽치로 함부로 치는 성품이니 그런 보리를 어떤 놈이 탄단 말인가.”

흥부 아내 하는 말이,

“애고, 이 말이 웬 말이오. 상담(常談)에 (㉠)는 말이 있지 않소. 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아 보다가 그만둡소.”

흥부 이 말 듣고 마지못하여 형의 집으로 건너간다.

- ① 포도청의 문고리라도 잡아 빼라.
- ② 동냥은 아니 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라.
- ③ 마당 벌어진 데 웬 술뿌리 걱정이나.
- ④ 자식 죽는 건 봐도 곡식 타는 건 못 본다.
- ⑤ 하루 죽을 줄은 모르고 열흘 살 줄만 안다.

25. 다음 중 사자성어의 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盲者正門: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이 어찌하다가 이치에 들어맞는 바른 일을 함
- ② 暴虎馮河: 용기는 있으나 무모함
- ③ 草露人生: 청빈하고 소박한 삶
- ④ 上下撐石: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건디어 가는 것
- ⑤ 望雲之情: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